

1 자연의 은혜와 함께

다이쇼 5년의 생산물 순위

1916(다이쇼 5)년, 홋카이도는 제1차 세계 대전의 호경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 도표는 당시의 홋카이도의 생산품을 생산액이 많은 순서로 스모의 순위 부표를 모방해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당시는 특히 농업이나 식료품 공업의 생산이 확대되어 콩이나 전분이 유럽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석탄과 목재를 밀바탕으로하여 철강업이나 제지업도 발전합니다. 약 100년 전의 이 순위 부표에는 현재도 홋카이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홋카이도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18세기 말경부터는 청어나 연어 등의 어업이, 19세기 말경에는 해외로부터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농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호경기 속에서 공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감자 전분, 첨채당(사탕무로 만든 설탕), 유제품, 통조림, 합판, 고무 등, 다양한 산물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다에 둘러싸여 넓은 숲과 대지가 펼쳐진 홋카이도의 풍부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고자 홋카이도의 대지, 바다, 산으로부터, 산물을 얻기 위해 시도해 왔습니다.

홋카이도는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농업 생산지입니다. 도시로부터 조금만 떨어지면 광대한 밭과 논, 목초지가 펼쳐집니다. 그 배경에는 농업지를 만들기 위해 삼림을 개간하거나 수로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위해 종사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쌓인 결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운 기후 속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의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청어, 연어, 오징어, 게, 대구, 가리비, 성게, 전복, 해삼 등, 해산물도 풍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갈밭과 그 주변에서 도구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가까운 바다에서는 큰 그물을 사용하고 멀리 떨어진 북쪽의 바다에도 수많은 배로 진출하여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힌 물고기 등은 건어물이나 캔류, 또 전답의 비료로도 가공했습니다.

홋카이도의 산에는 많은 석탄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탄광이 개발되어 홋카이도는 그 당시 일본의 일상생활이나 산업을 지지하는 석탄의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산에는 굵은 나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숲에서 큰 톱으로 나무를 벌목하고 말뼉매 등으로 벌목한 나무를 옮기거나 하여 일했습니다.

항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이 정돈되면서 홋카이도의 산물은 홋카이도 외의 지역, 그리고 해외에도 옮겨져 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죄수나 “다코”라고 불린 강제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어 풍어의 시대

일찍이, 홋카이도의 봄의 어업은 청어잡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이상이나 전에는 홋카이도 전도에서 1년에 약 100만 t의 청어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청어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물고기로 그 대부분은 “시메카스”라고 하는 비료로서 가공되었습니다. 청어잡이의 계절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으며 홋카이도 내부나 혼슈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객지벌이하러 왔습니다. 또, 잡힌 대량의 청어를 효율적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큰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검은 다이아몬드의 시대

홋카이도는 금, 은, 동, 납 등의 금속광물부터 석탄, 유황, 석회석 등에 이르기까지 지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1887(메이지 20)년 즈음에는 홋카이도 내부의 정밀한 지질 광상의 조사가 시행되어 각지의 광산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검은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린 석탄은 메이지 시대의 초경부터 탄광의 개발이 진행되어 쇼와 시대에 들어설 무렵인 1926년 즈음에는 석탄산업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거듭났습니다.